

시장 포화에도 광주 '생계형 카페창업' 붐물

사업자 2년새 2배 증가... 대부분 청년·중장년층 자영업자 폐업률 가장 높아...문지마 창업 실패 우려

전국에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광주에서, 이미 포화상태인 커피시장에 '초보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다. 일자리부족과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 세대가 비교적 쉬운 카페 창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과밀화된 '생계형 카페 창업'에 나섰다가는 실패할 확률도 높아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포화상태인 커피시장에 무분별한 진출=9일 국제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커피전문점 사업자 수는 지난 2016년 9월 561명에서 올해 1103명으로 무려 96.6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자 숫자 일 뿐으로, 국·내외 유명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직영점과 추가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면 실제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커피전문점 수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자치구 별로는 광산구가 2년 전 51명에서 178명으로 249%나 증가했고, 이어

서구 57명→166명(191% ↑), 남구 73명→168명(130% ↑), 동구 143명→230명(60% ↑), 북구 237명→361명(52% ↑) 순이었다.

이미 '포화상태'로 과밀화된 광주지역 커피시장에 생계형 창업자들이 몰리고 있어 우려가 크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커피 수입량은 12만1019.1t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2122.5t보다 1103.4t 줄었다. 커피 수입량이 줄어든 것은 2012년 이래 6년 만에 처음으로, 커피 산업이 포화 한계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인스턴트 커피와 카페 시장의 최강자로 평가되는 동서식품과 스타벅스의 성장세가 여전한데 있다. 커피시장이 한계를 찍으면서 양극화가 진행 중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대형 업체보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계 때문에 자영업에 내몰리는 광주

=굵직한 대기업 부재 등으로 고질적인 일자리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광주에서는 여쩔 수 없이 창업전선에 몰리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다. 하지만, 경제여건과 지역 내 산업환경이 척박한 광주에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 폐업을 통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유성업 민주당화당 의원이 국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자영업자 2만4259명이 폐업을 신고했는데, 가동사업자 대비(13.2%) 뿐 아니라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률(80.5%) 모두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지난 5년간 가동사업자 대비 폐업률도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광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창업 후 생존율이 전국 최약인 광주에서 경쟁이 치열한 카페에 창업자가 몰리면서 '카페를 새로운 카페가 죽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카페로 몰릴까?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초보 창업자들은 일반 업종에 비해 비교적 점포운영이 쉽다는 점에서 카페 창업을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이 높다'는 잘못된 인식

도 무분별한 카페 창업을 부추기는 데 한 몫 했다. 아메리카노 한잔에 들어가는 커피 원가가 300원이라고 가정하면, 판매가는 3000원으로 10배의 마진을 남길 수 있어 적자를 보진 않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 평균 매출액만 놓고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매출액 자체가 낮아 투자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장에게 돌아가는 금액 역시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여성들의 카페 창업 선호도가 높다는 점과 최근 상가공실을 증가 현상도 카페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 신도심이 조성, 기존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상가공실이 발생하고 그 자리에 카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자 직접 카페를 차리는 건물주도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진석 KJ건설링 대표는 "광주지역에 카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전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며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업종은 피하는 게 정석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차별성이 없는 한 카페창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남도한바퀴' 이용객수 크게 늘었다

24% 증가 3만8000명 이용 1~2월 낙조·야경 코스 운영

금호고속(사장 이덕연)은 9일 전남도와 함께 운영하는 전남관광지 순환버스 프로그램 '남도한바퀴'가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이용객수를 기록하며 이날 종료됐다고 밝혔다.

남도한바퀴는 지난 3월 1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총 1063회가 운행됐으며 3만8366명이 이용했다. 이는 지난해 총 이용객 3만983명 대비 7383명이 늘어난 규모다. 1회당 평균 이용객 수는 36.1명으로 지난해 32.3명에서 3.8명이 증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금호고속은 이용객 증가 이유로 22개 시·군을 경유하는 총 26개의 다양한 노선 운영과 기존 20개였던 상품을 26개까지 늘리는 등 지속적인 코스 추가, 모바일 스탬프 모으기·여행후기 작성 등 이벤트 실시, 20~30대 젊은 승무사를 투입해 서비스를 향상시킨 점 등을 꼽았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올 한해 이용객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 드린다"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토요일에 낙조와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2~3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 'KJ biz 체크카드' 출시

스타트업 기업·소상공인 혜택 국내 호텔·콘도 3~5%할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스타트업 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KJ biz 체크카드'를 지난 5일부터 판매 하고 있다.

KJ biz 체크카드는 ▲국제선 항공권 발급 수수료 최대 7% 면제 ▲국내 호텔 및 콘도 3~5% 할인 ▲해외 패키지 여행 시 24시간 지원 ▲제주도 골프장 그린이 20~50% 할인 등이 있으며, 그밖에 공항라운지 서비스가 제공되어 인천·김포·김해공항에서 연 1회 무료로 공항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1회에 15분씩 월 1회, 연 12회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588-3388, 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36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9 11 14 26 28	1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57,843,670	14
2 5개숫자+보너스숫자일치	47,338,203	62
3 5개 숫자일치	1,316,130	2,230
4 4개 숫자일치	50,000	103,846
5 3개 숫자일치	5,000	1,719,260

캠코, 곡성 신리마을 자매결연 '1사 1촌 김장나눔' 봉사활동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홍창의)는 지난 7일 곡성군 신리마을에서 2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사 1촌 김장 나눔' 봉사활동(사진)을 펼쳤다.

캠코는 지난 2005년 신리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뒤 14년째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지난 7월 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경로잔치를 열어 마을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특산품인 멜론 170상자를 공동 구매하는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 20여명은 마을 주민들과 정성껏 김장 김치를 담근 뒤 거동이 어렵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찾아 전달했다.

홍창의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직원들의 김장 나눔 활동이 신리마을 어르신들의 마음 온도를 높여주는 따뜻한, 희망의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영화 '국가부도의 날' 단체관람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 직원들은 최근 한국 영화 최초로 IMF 외환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단체관람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직장동호회 활동으로, 직원 간 소통과 공감함을 통해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청사 인근 영화관에서 단체관람을 했다.

'국가부도의 날'은 고용불안, 청년실업, 빈부격차 등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문제의 시발점이 된 지난 1997년의 모습을 통해 2018년 현재에도 유효한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며 동시대적 공감대를 자극하는 영화다.

한국 영화 최초로 IMF를 소재로 다뤘으며 생생한 캐릭터와 촌철살인의 대사, IMF 당시의 시대상을 담아낸 볼거리로 전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형환 청장을 비롯해 직원 120여명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대한민국에 들이닥친 경제 재난, 그 직전의 순간을 되새기며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책임감을 되새겼다. 이후 광주청 소통 커뮤니티 '광주청 행복열차'를 통해 '나만의 특별한 업무노하우'를 공유해준 우수 직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국가부도 사

태를 초래하고, 안이한 대처로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실패의 교훈을 얻기 위해 단체관람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환 청장은 "고생하는 광주청 직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영화 관람을 통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즐거운 광주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광주지사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 장애인 취업 알선
-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 인턴제
- 장애학생 취업 지원

기업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